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3년 9월 17일
제1966호

주임 신부 :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 703 968 3010 팩스 : 703 968 3013
주소 :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 sthasang@gmail.com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니”(루카 1,46-47)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 23-24)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가해)

제 1 독서 지혜 3,1-9 | 하느님께서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화답송 시편 126(125) |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제 2 독서 로마 8,31-39 |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복음 루카 9,23-26 |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때에 ²³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²⁴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²⁵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²⁶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우리나라는 18세기 말 이벽을 중심으로 한 몇몇 실학자들의 학문적 연구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들 가운데 이승훈이 1784년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신앙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마침내 한국 천주교회가 탄생하였다. 선교사의 선교로 시작된 외국 교회에 견주면 매우 특이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의 조선은 충효를 중시하던 유교 사상에 부리를 두고 있어, 그리스도교와 크게 충돌하였다. 그 결과 조상 제사에 대한 교회의 반대 등으로 천주교는 박해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신해 박해(1791년)를 시작으로 병인박해(1866년)에 이르기까지 일 만여 명이 순교하였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의 해인 198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이 순교자들 가운데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와 평신도 정하상 바오로를 비롯한 103위를 시성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9월 26일에 지냈던 ‘한국 순교 복자 대축일’을 9월 20일로 옮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음 묵상

오늘 우리는 103위 순교 성인을 비롯하여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을 기리는 대축일을 지냅니다. 많은 분이 김대건 신부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탄생’을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 죽음을 앞둔 순교자들이 보여 준 기개와 의연한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때를 오히려 영광과 축복의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김대건 신부님의 참수 장면에서,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는 가운데 천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늘 나라의 행복을 노래하던 신부님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연하여 보였습니다. ‘도대체 그런 용기와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영화를 보는 내내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진정한 ‘목숨’, 곧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은 현세의 ‘목숨’마저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전자의 목숨이 후자의 것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이 영원한 목숨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얻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시련을 겪으면서도 평화를 누리고,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인들처럼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제1독서).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얻게 될 구원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러하였듯이, 확신에 찬 신앙인은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신을 결코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제2독서). <정천 사도 요한 신부>

16일, 바티칸에서 김대건 신부 성상 축복식 가져

- 5일, 성 베드로 대성전 외부 벽감에 설치 -

2023년 9월 16일(토) 오후 3시(한국 시각 오후 10시)에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성상 설치 기념 미사가 봉헌되며, 이어 오후 4시 30분 성 베드로 대성전 외부 성상이 설치된 장소에서 축복식이 거행된다.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축복식은, 마우로 감베티 추기경(성 베드로 대성전 수석 사제)의 주례로 거행된다.

『축복 예식』(『III 성인들의 성화상 축복 예식』)에 따르면, 교우들의 성가로 시작하여 집전자의 십자 성화와 인사, 예식의 뜻 설명, 독서, 화답송, 강론, 청원 기도, 축복 기도, 성상에 분향, 집전자의 강복, 성가로 마친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1821년에 태어나 1846년 9월 16일 25세의 나이로 순교한 최초의 한국인 사제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2020년 11월 29일 - 2021년 11월 27일)을 마무리하며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을 기억하고자 그동안 성상을 제작해 왔다. 주교회의의 2022년 추계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16개 교구가 성상 제작비를 지원하였다.

2023년 9월 5일, 성 베드로 대성전 외부 벽감에 설치된 성상은 높이 3.70m, 가로 1.83m, 세로 1.2m의 비앙코 카라라 대리석으로 제작되었다. 성 김대건 신부의 성상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으로 부드러운 곡선과 볼륨을 강조하였으며, 두 팔을 벌려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 다른 문화와 공동체를 대표하는 다양한 성인들의 동상이 성당 전체에 위치할 것입니다.

알링턴 교구 50주년 기념사업인 주교좌성당 재건축에 마이클 버짓지 주교님께서 총 18개의 창문 공사 중 하나의 창문에 본당의 주보성인이신 **성 정하상 바오로 성상(1m70)**과 **성화 스테인드글라스**를 봉헌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구 내 다문화 공동체의 대표 본당으로서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 성상과 스테인드글라스 공사 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 신자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봉헌물 | 성 정하상 바오로 성상과 성화 스테인드글라스
- 본당 목표 금액 | **\$100,000**
- 현재 모금액 | **\$44,253**
- 모금 방법 | 준비된 봉투에 체크나 현금으로 약정 후 제출 (평일 사무실)
체크 Pay to order는 St Paul Chung,
메모에 '주교좌 성상'
- 모금 기간 : 2023년 9월 30일(토) 까지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9월 29일(금) 오후 7:30
- 한가위를 맞아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상, 부모, 친척, 친지들을 기억하는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 합동 위령미사 예물을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2 9월 하상회 / 만나회 월례 회의 취소

- 9월 17일(일) 월례 회의는 9월 24일(일) 효도 한마당 잔치로 대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 9월 17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4 2023년 추석맞이 효도 한마당 잔치

- 일시 : 9월 24일(일) 오전 11:30 - 오후 2:30
-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르신들(안나회, 하상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정성껏 효도 한마당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푸짐한 선물과 장기자랑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행사 후 셔틀버스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

5 대부모 / 대자녀 프로그램

- 일시 : 9월 17일(일) 오전 11:15 (A-1)
- 예비자들과 함께 친교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야 (703) 627-1932

6 꾸르실료 여성 18차 환영식

- 일시 : 9월 17일(일) 오후 4시 - 7시 (친교실)

7 울뜨레아 월례 모임

- 일시 : 9월 22일(금) 오후 8시 (A-1,2,3)

8 루카회 월례 회의

- 일시 : 9월 24일(일) 오전 11:30 (나눔터)

9 KoC / 요한회 월례 회의

- 효도 한마당 잔치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10 CYO 오케스트라 / 성가대 새 단원 모집

- 학생 미사에 함께 노래하고 연주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대상 학년 : 3학년 - 12학년 (노래)
7학년 - 12학년 (관현악, 피아노)
- 오디션 : 9월 24일(일) 오후 4:15
하상관 지하 #7 (음악 연습실)
- 자유곡 1곡, scale, sight reading (시창)
- 문의 : 조 스테파니아 (703) 725-3167

11 성 정하상 바오로 성상과 성화 스테인드글라스 기금 모금

- 성 정하상 바오로 성상과 성화 스테인드글라스 기금 모금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분당 목표 금액 : **\$100,000**
- 현재 모금액 : **\$44,253**
-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참조하세요.

12 불우이웃 돕기 5K 걷기 / 달리기

- 일시 : 9월 23일(토) 오전 8시
- 장소 : Burke Lake Park(Shelter A)
- 신청 : 오전 8시, 10시 미사 전-후
친교실 / 사무실 / 성물부
- 신청비 : 1인 \$15 / 2인 \$25 / 한 가족 \$30(3명)
아침 식사 제공
- 문의 : 복지부장 김 다니엘 (703) 517-1574

13 연중 영화 상영

- 일시 : 10월 6일(금) 오후 8시
- 영화 제목 : 파티마의 기적
- 세계 3대 성모 발현지인 포르투갈 파티마의 체험자인 루치아 수녀(소녀 브라가)가 들려주는 성모님 발현 이야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4 미 동중부 성령 묵상회

- 일시 : 10월 14일(토), 10월 21일(토)
오전 9시 - 오후 6시
- 주제 :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하나로 모아 집니다."
(요한 1서 5장 8절)
- 우리의 삶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성령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신자 분들을 초대합니다.
- 장소 : 성 정 바오로 성당
- 접수 :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참가비 : \$50 (점심 제공)
- 문의 : 박 수산나 (703) 909-2980

15 결혼 히년 미사 안내

- 결혼 25주년(1998년), 50주년(1973년)이신 분들을 위해 교구에서 기념 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 10월 15일(일) 오후 3시, St. Agnes 성당 (주교님 집전)
- 신청 :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0월 2일(월)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6 CYO - Arlington Diocese RALLY

- 일시 : 10월 22일(일), 오후 12시 - 8시
- 장소 : Bishop O'Connell High School
- 신청 : 9월 17일(일)부터 10월 1일(일)까지 학생 미사 후 하상관 교무실
- 참가비 : 한 학생당 \$10 (티셔츠, 저녁 포함)
- 문의 : 구아름 데레사 (703) 599-8869



자선을 위한 5K
RUN & WALK

2023. 9. 23(토) 8:00 AM

- 장소 | Burke Lake Park Shelter A
- 대상 | St Paul Chung Church Member
- 신청 | 친교실 & 사무실 & 성물부
- 참가비 | 1인 \$15 / 2인 \$25 / 한가족 3명 \$30
- 문의 | 복지부 차장 (703) 772-7275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9월 10일 (연중 제23주일)

봉헌금	\$ 7,965.40
교무금	\$ 4,580.00
교무금(신용카드)	\$ 2,140.00
2차 헌금	\$ 2,552.00
온라인 봉헌	\$ 1,760.00
합계	\$ 18,997.4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9월 21일(목) 오후 5:00 - 6:00
- 9월 22일(금) 저녁 8:00 - 9:00
- 9월 24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 [23회]
"감감한 밤의 경계를 넘어온 숨결"
- 김대우 모세 신부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